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엄벌'

정부 합동단속 결과 저작권법 위반 13개 사이트 운영자 검거·25개 사이트 폐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저작권 특별 사법경찰은 국내 최대의 불법복제만화공유사이트인 '마루마루'의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8일 밝혔다.

문체부는 작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함께 서버를 해외로 이전하여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왔다. 작년 한 해 동안 총 25개의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중 13개 사이트의 운영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링크사이트 '마루마루' 통해 불법복제물 4만 2천 건 저장된 웹서버에 연결

이번에 입건된 운영자 2씨는 국내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미국의 도메인 서비스업체를 통해 만화 링크사이트인 '마루마루'를 개설하고 이를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약 4만 2천 건을 저장해 놓은 웹서버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2씨는 링크사이트 '마루마루'를 사용자들의 이용 창구로 활용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 불법복제물이 저장되어 있는 웹서버의 도메인 주소를 '망가마루', '와사비시럽', '센코믹스', '유코릭스' 등으로 수시로 바꾸는 치밀함을 보여 왔다.

▲번역, 광고 대행 등 조직적인 사이트 운영으로 12억 원 이상 광고수익 거둬

2씨는 외국의 신작 만화를 전자책 등으로 구매한 후 '마루마루' 게시판을 통해 번역자들에게 전달하고, 번역된 자료를 다시 2씨가 게시하는 불법적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왔으며, 사이트 운영을 통해 거둬들인 광고수익만 12억 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피의자 2씨는 '마루마루'의 광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광고수익의 약 40%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마루마루'의 경우에는 사이트 운영구조와 거래관계가 복잡해 실제 운영자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수사에 장기간이 소요되었다.

▲평범한 고교생, 대학생 등 일반인이 범죄자로 전락, 형사처벌~민사소송까지

작년 한 해 동안 정부합동단속으로 검거된 13개의 불법사이트 운영자 중에는 고교생을 비롯해 대학생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는 가족까지 사이트 운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 수익은 10억 원이 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수천만 원 수준인 반면 업계의 피해액은 범죄수익의 수백 배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검거된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운영자들은 형사처벌 이외에 권리지들로부터 범죄수익의 몇 배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당하게 된다. 실제 '밤토끼' 운영자의 경우 1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도와 만화 번역을 하거나 사이트를 관리한 이들도 2차 저작물작성권 침해나 저작권침해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평범한 학생과 같은 일반인도 범죄라는 인식 없이 소액의 대가를 받고 사이트 운영을 도왔다가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웹툰, 방송, 만화 등 모든 분야의 최대 불법사이트 운영자 검거, 향후 2~3년간 강력 단속

작년 5월 정부합동단속을 시작한 이후 웹툰 불법공유사이트인 '밤토끼'의 운영자가 검거

되고, 지난 10월에는 방송저작물 불법공유사이트인 '토렌트링크'의 운영자가 검거되었으며, 12월 만화 불법공유사이트인 '마루마루'의 운영자까지 검거되면서 분야별 최대 규모의 불법사이트 운영자는 모두 검거됐다.

이와 같은 성과는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어떠한 형태의 저작권 침해 행위도 반드시 처벌받자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불법사이트의 확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웹툰, 만화, 방송 콘텐츠 등의 합법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향후 2~3년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침해 사이트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외사업자들과의 협조를 통해 사이트 개설 및 운영자 정보를 확보하고 해외 각급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수사 공조로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신속히 검거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에 대한 정부 대응이 관계기관 간의 협업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불법사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법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합법사이트 이용을 당부했다.

한편, 이중심으로 인한 접속차단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작년 5월의 정부합동대책에 '접속차단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포함하였으나, 이는 협의 주제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의 입장 변화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심위로 심의를 일원화하기로 하고, 이로 인한 문제점이나 업계의 불만이 없는 지 추이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뉴스시스



초여름의 낭만을 선물하는 무주산골영화제가 제7회 영화제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깊이 있고 풍성한 영화 라인업

무주산골영화제 개최일 6월 5일 확정... 14일부터 출품 공모 시작

초여름의 낭만을 선물하는 무주산골영화제가 제7회 영화제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제7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오는 6월 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6월 9일까지 5일간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영화제 기간은 징검다리 연휴가 겹쳐 이전보다 더 많은 관객이 무주에서 영화와 자연을 즐길 것으로 예상된다. 깊이 있고 풍성한 영화 라인업으로 많은 관객의 사랑을 받아온 무주산골영화제는 제6회 영화제에서 영화와 더불어 공연과 토크, 산골책방 등 예년에 비해 훨씬 다양해진 이벤트를 마련해 영화제를 찾는 관객에게 큰 호평을 받으며 한층 성장한 영화제의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이와 함께, 제7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오는 14일부터 한국장편영화경쟁 부문인 '창' 섹션의 출품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영화제 준비에 나선다. '창' 섹션은 독창적이고 도전적인 한국독립영화들을 엄선해 상영하는 무주산골영화제 유일의 경쟁부문이다. 최종 선정된 영화들은 영화제 기간 내 상영되며,

이 중 우수작들에게는 뉴비전상(대상)을 포함한 3개 부문에 걸쳐 상패와 총상금 1,500만 원이 수여된다. 그간 '창' 섹션에 상영되었던 <만신>(2014, 감독 박찬경), <한여름의 판타지아>(2015, 감독 장건재), <재꽃>(2017, 감독 박석영), <죄 많은 소녀>(2018, 감독 김의석) 등이 뉴비전상을 수상했으며, 이후 극장 개봉되어 관객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창' 섹션 출품 조건은 2018년 8월 1일 이후 제작 완료된 60분 이상의 한국장편영화이며 장르는 제한이 없다.

접수 기간은 14일부터 2월 24일까지이고, 접수 방법은 무주산골영화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출품신청서를 작성 후 작품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제7회 무주산골영화제는 한국독립영화 감독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산골영화제 공식 홈페이지(www.mjiff.or.kr) 참고 및 사무국 프로그램홍보팀(전화 063-220-8252 / 이메일 mjiffilmfest@naver.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대 박물관, 지역민과 함께하는 시네마 프로그램 운영

내일 '워낭소리' 이충렬 감독과 대화 마련

지난 7년 동안 지역민을 위한 무료영화 상영 프로그램인 '목요시네마 뮤즈'를 진행해 온 전북대학교 박물관(관장 조대연)이 범위를 확대해 '박물관 시네마 산책'이라는 지역문화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을 새롭게 마련했다.

국립대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기존 지역민을 위한 무료 영화 상영에서 나아가 영화 촬영지 답사와 감독을 직접 초청한 대화 시간,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 등으로 구성했다.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북대 박물관은

내일 오후 2시 2층 강당에서 워낭소리를 연출한 이충렬 감독을 초청해 감독과의 대화 시간을 갖는다.

이를 통해 영화에 대한 이야기와 관객들이 궁금했던 점들을 기탄없이 대화하고 소통할 예정이다.

조대연 전북대 박물관장은 "한국 독립영화의 히트작을 연출한 이충렬 감독과의 대화 시간은 관객들과 함께 영화를 통한 다양한 소통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전북대 박물관은 앞으로도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문화 소통의 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오늘 '신년 음악회' 열려... 새로운 시작 화합과 평화 염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기해년 새해를 맞이해 오늘 오후 8시부터 예술의전당 음악당 콘서트홀에서 '2019 신년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화합과 평화를 염원하는 의미를 담아 음악회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국내외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여자경 지휘자와 한국방송(KBS) 교향악단이

함께한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국내 최정상급 바이올린 연주자 강동석과의 협연과 남북정상회담 축하 공연 등에 출연해 화제가 된 소년기수 오연준 군의 독창, 청소년 합창단의 합동무대도 선보인다. 음악회에는 문화예술계 관계자와 장애인 예술인·체육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중소기업 종사자 등 일반 국민 총 2000여 명이 참석한다.

/뉴스시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